

2023 겨울호

# WOMAU

News



# 목차

## 2023 겨울호 WoMAU News No. 38

WoMAU News는 세계무술연맹(WoMAU)의 활동과 무예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은 아카이브(기록보관소)이자 전통 스포츠 및 게임(TSG)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용적인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계 무예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본 소식지가 이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04

#### 전문가 칼럼

- 인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서울비전 2023 | 허권
- 국제연무대회 의의 | 리차드슨 지알로고

### 12

#### 기획기사

- 한국전통무예 택견과 청소년무예체력을 카자흐스탄으로 | 디마 찌가이(카자흐스탄장사나티 협회장)

### 16

#### 회원 소식

- 세계기사연맹
-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술
- 사바테 연맹
- 국제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

### 21

#### 유네스코 소식

-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자문NGO 재인가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및 서울비전 선포



## 23

### 사무국 소식

- 2023 유네스코 후원 국제연무대회 성료
- 2023 가족무예캠프
- 팀코리아택견, 우즈베키스탄 국제전통스포츠포츠축제 참가
- 제22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 제5차 유네스코 등재무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
- 한국-베트남 무술·문화교류주간
- 2023 찾아가는 청소년무예체력인증
- 세계무술연맹 20년(2002-2022년) 발간

## 32

### 안내

- 총회 유치 절차 안내
-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WoMAU News는 세계무술연맹(WoMAU)이 연 2회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전화 043) 852-7952-8

홈페이지 [www.womau.org](http://www.womau.org)

발행인 민경창

팩스 043) 853-7341

주소 (27438) 충청북도 충주시 옷갓길73 국제무예센터 2층 세계무술연맹

편집장 이태호

이메일 [secretariat@womau.org](mailto:secretariat@womau.org)

편집 오진서

제작 (주)한일기획

# 인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서울비전 2023



허권

세계무술연맹 이사  
전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 사무총장

4

전문가칼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글로벌 회의, The Seoul Global Meeting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가 2023년 7월25-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Unleashing the power of living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유네스코본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문화재청이 주최하였고 ICHCAP이 주관하였다. 모두 4개 특별 주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을 공식 선포하였다.





## I. 인류유산 보호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창설된 유네스코는 그 창설 목적을 “평화와 발전”의 진작으로 정했다. 유네스코 헌장(1945/11.16)에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한 마디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켜 더 이상의 전쟁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창설이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유산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할 뿐 아니라 위협에 노출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각 국가와 협력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유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인류유산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협약은 6개가 있다.

- ▶ 헤이그협약 1954년,
  - ▶ 문화재반환협약 1970년
  - ▶ 세계유산보호협약 1972년,
  - ▶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2001년,
  -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 ▶ 문화다양성협약 2005년
- \* 초창기 헤이그협약, 문화재반환협약은 ‘문화재’ 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① 1960~90년대

유네스코는 ICOM, ICOMOS, ICCROM 등 중요 NGO와 협력하면서 위기에 처한 인류유산에 대한 보호사업을 전개한다.

- ▶ 국제유산보호캠페인 Int'l Campaign for Cultural Heritages:  
누비아 1960, 베니스 1962, 모엔조다로, 앙코르와트, 보루보도르 등
- ▶ 세계유산보호사업 World Heritage

이 시기의 유산보호는 주로 유형문화재, 즉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박물관 진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유산보호사업들이 주로 유럽국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② 2000년대

세계화, 문명충돌 등의 위기로 21세기의 범지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 문명간 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 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 > 문화다양성
- > 문명간대화촉진

이 시기에 들어와서 1)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학적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의 전환되기 시작했고, 2)문화상대주의, 문화다양성, 평화의 문화 등이 강조되었으며 3)유산보호도 통합적 접근, 지역(인간)중심의 보존철학이 도입되었다.

### ③ 2010년대 이후

기후온난화, 다극 체제, AI 신기술의 등장 등 과거가 현저하게 다른 커다란 범지구적 문제와 도전들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자원, 경제, 종교 등으로 인한 종족, 지역, 국가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인류의 위기를 대응하는 세계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무형적 가치, 문화의 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 UN 2030 SDG: 통합적 접근방식
- > 환경의 보호와 삶의 조화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 패러다임에서 NGO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약화, 무형적 가치의 변질, 훼손,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 II.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노력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1980~2003년

이 기간중에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된 권고안이 채택되는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크게 향상된 시기였다.

1982년 개최된 세계문화장관회의 MONDIACULT(멕시코)에서 무형유산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이 회의 선언문에 이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The Mexico Declaration furthermore stated that every culture represents a unique and irreplaceable body of values since each people’s traditions and forms of expression are its most effective means of demonstrating its presence in the world.”

국제사회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자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인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 권고안”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을 1989년에 채택한다. 비록 무형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중 유네스코가 수행한 3가지의 중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인간문화재 제도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소개  
(1993, 한국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142차 집행위원회 채택)
- ②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 2001, 2003, 2005: 90점.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③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보편선언(2001년 9월)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각 회원국가의 유산에 대한 정책적 실행이 중요함에 따라 유엔은 2002년 문화유산 해를 지정하여 유무형 유산보호가 사회발전 및 평화증진에 큰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United Nations Year for Cultural Heritage 200,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움직임을 따라 유네스코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느끼고,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3년 10월7일 무형유산보호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찬성 10, 기권 8, 반대 0)을 채택하게 된다.

## 2 2003년 이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제정 이후 짧은 기간내 전세계 많은 국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받았다.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 널리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3년 현재, 181국 가입, 676개 유산목록, 217개의 인가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 3 과제

짧은 기간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류 유산보호를 위한 상당한 과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인구이동 및 감소,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 환경악화, 팬더믹, 전통가치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공동체 결속의 약화, 유산전승과 학습환경의 파괴, 문화다양성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 III.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살아있는 유산'

MONDIACULT 2022에서 강조했다듯이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야말로 우리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유엔 2030 SDG 2, 8, 11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다.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 ① 지구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세계와 연결된 전통지식과 기술의 보호를 통해 자연존중 및 보호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인식향상이 필요하다.
- ② 현 교육체계의 위기를 고려할 때 무형문화유산은 학교의 질적 교육에 도움을 준다. 문화다양성 및 평화존중,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위기이면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 ④ 무형유산보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문화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공동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 국제연무대회 의의



Dr.리차드슨 C. 지알로고

필리핀

필리핀 아르니스 팀은 2023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충주에서 세계무술연맹 후원 하에 개최된 국제연무대회(IMAC)에 참가하여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필리핀 각 지역 대회 우승자들로 구성된 아르니스(Arnis) 팀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회에 임했습니다.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수도권에서 네 번의 토너먼트가 진행되었으며, 각 토너먼트 우승자들이 모여 챔피언 결정전을 치렀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선수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우승한 선수들은 2023년 3월부터 필리핀 정부로부터 기숙사, 식비,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감독인 리차드슨 C. 지알로고(Richardson C. Gialogo) 세계무술연맹(WoMAU) 부회장이 이끄는 코칭스태프의 지도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성과는 국제연무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제연무대회가 전세계에서 수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회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자선 행사, 비즈니스 미팅에서부터 대규모 축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사이든 홍보가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제연무대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타겟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 참가자들의 성향, 인구 구성, 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회 주최자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면 타겟 집단에 적합한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대감을 조성하십시오.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얼리버드 티켓 할인,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열정과 기대감을 조성하면 보다 많은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회 홍보를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은 협업입니다. 현지 기업(후원사), 유력 인사(후원자),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모색하십시오. 교차 프로모션을 통해 홍보 범위를 넓히고 대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이나 공동 주최도 대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십시오. 디지털 마케팅 외에도 전단지, 포스터, 지역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전략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입소문입니다. 참가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국제연무대회에 대해 언급하도록 독려하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십시오. SNS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 티저를 자주 게시하십시오. 메시지와 댓글에 응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대회에 대한 활발한 대화가 오가도록 독려하십시오.

이메일 마케팅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작성하고 눈길을 끌 수 있는 교육적인 뉴스레터를 배포하십시오. 이메일을 통해 대회 관련 주요 사항들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설문조사와 같은 참여형 요소를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홍보 전략을 수정하십시오. 웹사이트 통계와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특정 홍보 채널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가장 성공적인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연무대회는 매우 뜻 깊은 행사입니다. 무술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기 단련법입니다. 발차기, 지르기, 화려한 동작들이 무술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술은 체력 단련부터

정신 건강, 자기 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 소양이자 수양입니다.

무술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체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술 훈련은 심혈관 건강은 물론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무술은 체중 관리와 근육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한 운동입니다.

무술은 신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술 수련을 통해 자제력, 존중, 인내, 규율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과 인간관계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술이 가진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효과는 자기 방어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습득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개인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지식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무술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술 수련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술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무술은 인격 형성, 스트레스 감소, 자기 방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일 됩니다. 무술의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누구라도 무술의 세계에 입문하여 이런 수많은 효과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연무대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전통무예 택견과 청소년무예체력을 카자흐스탄으로

2023년 충주에서 택견을 만난 것은 제게는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군인 이셨던 제 증조할아버지는 충주에서 나고 자라셨고 제 본관은 충주예요. 택견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도 알고 익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전통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4세  
Dementiy Petrovich TIGAY





세계무술연맹사무국은 카자흐스탄에 택견과 청소년무예체력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고려인 4세 Dementiy Petrovich TIGAY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01 | 자기 소개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남부 침켄트로 이주하셨고 어린 시절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중학교를 다녔어요. 2002년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왔고 현재는 수도 아스타나와 침켄트를 본 거지로 물류 유통사업체를 운영하며 카자흐스탄의 청소년들이 무예를 통해 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무예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02 | 무술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내던 유년시절 7살부터 10살까지 태권도를 배웠고 12살까지는 킥복싱을 수련하였습니다. 주변에도 무예나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되었고요. 특히 2010년 첫아들이 생기고부터 아이들 건강이나 체력,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무술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03 | 우즈베크무술과의 만남

2021년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에 있는 어린시절 친구의 권유와 카자흐스탄의 무예코치 Mr. Zhanat 와의 인연을 통해 우즈베크전통무술을 카자흐스탄 10개주에 보급하였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정식으로 인가된 무술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2023년 4월에 우즈베크 전통무술세계챔피언십을 침켄트에서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술분야 진흥에 힘쓰고 있는 우즈베크전통무술협회의 사업방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2023. 8. 19. 세계택견대회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무예인 Mr. Zhanat



2023. 8. 19. 세계택견대회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무예인 Mr. Sanzhar

## 04 | 택견을 시작한 계기와 향후 계획은

: 우즈베크전통무술단체 대표 Mr. Pulat Usmanov에 의해 한국의 전통무예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택견을 알게 되었고, 2023년 4월 세계무술연맹사무국과 접촉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고려인이고 택견이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전해온 무술이고 고유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택견협회가 개최하는 온라인세미나에 참가하여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했고 아직 서툴지만 우리 코치와 선수가 지난 8월 충주에서 개최된 세계택견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어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는 이 결과가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세계무술연맹과 한국택견협회 관계자, 택견 인 간문화재 정경화선생님 등 택견과 카자흐스탄 택견협회 설립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를 마쳤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에도 택견교실 개설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받았습시다.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에 108,000 명의 고려인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택견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발전시켜 고려인들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택견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각자의 꿈을 깊이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3. 10. 18. 충주 택견원에서 정경화 택견예능보유자와 함께



## 05 | 청소년무예체력인증에 대한 견해와 진흥계획

지난 4월 칩켄트에서 세계무술연맹사무국과 면담하면서 무예체력인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행하고 있는 무예 활동이라 함은 젊은이들이 무예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해당 종목의 단이나 급수를 승격시키고, 대회에 참가하여 순위 안에 들어 메달과 상장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과 무술 기량 향상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증프로젝트가 조선시대 무과 및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장비와 접목하여 무예 수련 및 기술구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손쓰기, 발쓰기, 무기쓰기, 힘쓰고·달리기」4개 종목으로 구성 개발되었으며, 무예활동을 통해 변화되는 신체발달 및 체력상태를 연령별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회차별 인증 기록과 개선된 정보를 앱(app)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획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바로 택견과 다양한 무예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프로젝트와 접목하여 카자흐스탄에 보급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예를 수련하는 시간을 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나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은 물론 아이들 지도방법, 건강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수련생 4명이 금년도 한국에서 개최된 청소년무예체력인증대회에 참가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무예체력인증 장비 작동법 전수

저는 이미 인증장비를 구입하였고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내의 10개 지부가 위치한 도시를 순회하며 인증을 실시할 것입니다.

## 06 |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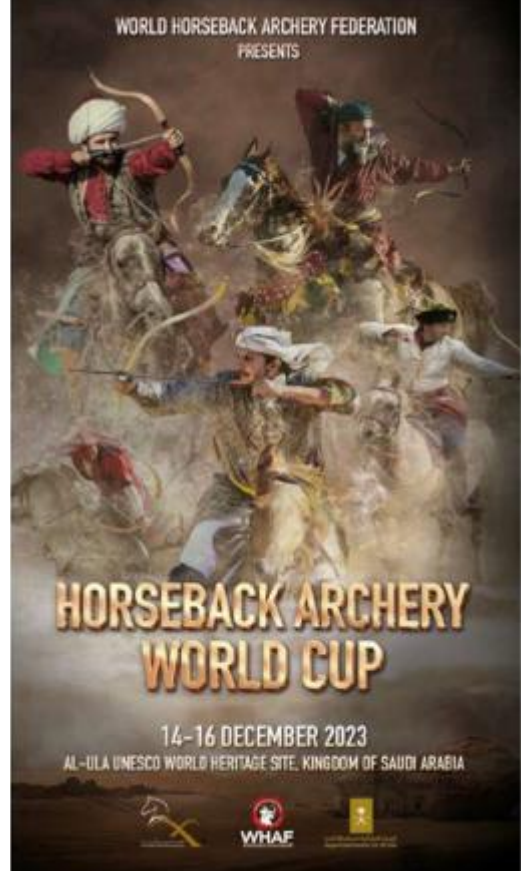
올해 택견과 청소년무예체력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과 무예에 대한 인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이 미래를 무예활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다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무예인들 존경을 표하고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기사연맹

세계기사연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16일 까지(3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1회 기사 월드컵(Horsback Archery World Cup)을 개최했다.

경기는 연속사, 마사희, 퀴박, 아랍 로컬 스타일 등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며 세계기사연맹 정식 종목으로 처음 개최되어 2년에 한 번 씩 국가급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대륙별 호스백 아처리 월드컵 예선전을 통과한 국가대표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루는 대회이다.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던 세계기사챔피언십(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도 요청 국가 순서대로 절차를 거쳐 연중 경기로 진행된다. 내년 세계기사챔피언십 개최 신청 국가는 중국(24년 4월경)으로 11월 중 실사 예정이며 이외 대륙별 예선전이 다수 개최예정이다. 더불어 북경에서 내년 겨울 세계기사챔피언십과 기사 월드컵 예선전을 신청하여 이를 위한 회의가 예정 중이며 경기장 사전조사를 위해 세계기사연맹 의장 및 임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다.





#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술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술 수련원(Okichitaw Indigenous Combat Arts)은 2023년에도 학교, 대학, 다른 민간 무술 학원,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평원 원주민의 역사와 무술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광역토론토 지역의 YMCA와 함께 하고 있으며, 원주민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원주민 문화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키치타우 무술의 동작과 개념을 가르치고 직접 체험해보는 참여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뀐 환경 속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들로 인해 캐나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인터랙티브 워크숍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그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난 1년 반 동안, 대면 교육은 물론 모든 대화형 참여 활동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대면 무술 수련이 어려워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무술계에게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오키치타우 원주민 무예는 플레인 크리 아시니보(Plains-Cree Assiniboine) 원주민의 전통 무예로서, 역사, 기술, 전술, 동작을 외부인들과 널리 공유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키치타우는 1990년 이전까지 원주민 사회 내 특정 지역 내에서만 공유되었고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적 사건으로 인해 오키치타우가 공유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키치타우는 다른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원주민들과도 우리 부족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큰 피해를 받은 우리 원주민 사회에게 오키치타우는 진실과 화해의 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키치타우 워크숍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교류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전역의 다른 원주민 부족, 보호 구역, 공동체와의 교류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키치타우는 '평원' 원주민의 독특한 무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원주민 공동체들에서도 오키치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키치타우 워크숍을 통해 동쪽의 카나웨이크 모호크(Kahnawake Mohawks)족, 서쪽의 식시카 블랙풋(Siksika Blackfoot)족과 같은 다른 부족들에게 오키치타우 무예를 전파했습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오키치타우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려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면 교류, 체험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주민의 전통과 의식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사바테 연맹

스포츠어코드 회원인 국제사바테연맹(FISAV)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3 월드 콧 게임(World Combat Games)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FISAV는 2022년 아쏘(Assut), 2023년 콩바(Combat)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 2023년 월드 콧 게임에 참여할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월드 콧 게임은 합기도, 펜싱, 태권도, 사바테 등 다양한 격투기 시합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국제 대회입니다.

사바테 아쏘, 콩바 종목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렸습니다. 조엘 뒤메즈(Joël DHUMEZ)가 프랑스 선수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사바테 팀은 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프랑스가 종합 순위 10위권에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Nina BERGANDI, Rim RIDANE, Andrea CAMPOVERDE, Mehdi LAURENT, Elias KANFOUAH, Christopher BRUGIROUX, Amine FEDDAL, Johan GHASSIRI 선수가 금메달을, Méghane AMOURI, Fanny SERENA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모든 메달리스트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 국제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

IZSF는 2022-2023년에도 여러 국제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코치, 심판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IZSF는 주르카네 스포츠(Zurkhaneh Sports)와 코쉬티 파흘라바니(Koshti Pahlavani)의 발전과 전세계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 코치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챔피언십보다 코치 및 심판 교육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01 이란 98명, 러시아 4명, 아프가니스탄 3명, 인도 1명, 이라크 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제5회 국제 주르카네, 코쉬티 파흘라바니 코치 & 심판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02 IZSF는 주르카네 스포츠 및 코쉬티 연맹(인도)와 협력하여 2023년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펀자브 주 파티알라(Patiala)에 위치한 펀자브 대학교에서 인도 6개 지역 / 도시 / 주에 걸쳐 60명이 참석한 "제 1회 인도 주르카네 스포츠 및 코쉬티 팔라바니 훈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대사관 문화원도 행사에 협력했으며, 이라즈 엘라히(Iraj Elahi) 이란 대사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자문NGO 재인가

제1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세계무술연맹 자문기구 지위 3연속 승인.  
이집트 회원단체 “상부이집트교육개발협회”도 자문기구 승인.

보츠와나 카세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8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비정부기구(이하 NGO)로 다시 승인되었다.

2010년을 시작으로 위원회로부터 인가된 총 217개의 NGO 중 이번 회의에서 재인가 대상은 91개였으며, 세계무술연맹, 한국문화재단,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등 80개의 NGO가 재승인 되었고 나머지 11개는 요건 부족 등을 사유로 지위가 종료되었다.

또한 이집트 전통무술 타흐팁을 보호하고 진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정회원(가입:2019) 상부이집트교육개발협회(Association of Upper Egypt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는 신규 NGO로 승인되었다.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세계무술연맹 민경창 사무총장은 세계무술연맹 회원단체의 자문 NGO 지위 획득을 크게 축하하였고, 향후 에도 우리 회원단체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선도적인 활동하는 모범적인 국제비정부기구가 되도록 나아가겠다고 했다.



#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 및 서울비전 선포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국제회의(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가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국제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주유네스코대표부 박상미 대사, 최 싱 유네스코 부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비롯하여 협약 당사국 대표, 전문가, NGO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양일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4가지 주제(지속 가능한 삶, 자연, 양질의 교육, 디지털 환경)로 무형유산 보호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위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서울비전'을 채택하였다. '서울비전'은 12월 18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23.12, 보츠와나)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 20주년 활동으로 공식 보고되었다.



# 2023 유네스코 후원 국제연무대회 성료

지난 8. 18.(금) 부터 20.(일) 까지 “무예와 함께, 삶을 건강하고 평등하게”를 주제로 충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2023 국제연무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대회는 이란,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27개국 54개 단체에서 약 650여명이 참가하여 국내·외 다양한 무예를 수련하는 선수들이 경연을 벌여, 화합·존중·상생의 가치를 발현하는 장이 되었다.

27개국  
54개 무예단체  
참가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세대 국제연무대회의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기존 연무Ⅱ(演武, 무예공연) 경연과 더불어, 연무Ⅰ(鍊武, 무예수련)의 측면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무예의 영향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청소년 무예체력인증경연”과 이를 기록 / 관리하는 무예 마이데이터 기반의 “MA-ON” 앱(app)이 첫 선을 보였다.

특히, 연무Ⅱ 부분에서 필리핀 “아르니스”팀은 각 파트별 전문코치를 선임(5~6명)하여 무예시범공연에 대한 괄목할만한 질적 향상을 거두었고, 인도네시아의 “펜카실랏”팀과 작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캄보디아



무예퍼포먼스 경연(우승)\_대한민국 미르에 태권도팀



의 “보카토”팀 등 다수의 팀들이 각자의 시범에 스토리 라인이나 연출기법을 대거 도입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 등재무술 중 하나인 이란의 “주르카네” 체험, “조선무과(武科) 의식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세계 전통무술 공연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였으며, 현장에 방문한 시민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도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로써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둘 수 있었다.



# 2023 가족무예캠프

“무예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과 가족화합의 장”



2023 가족무예캠프가 2023. 7. 8.(토) ~ 9.(일), 7. 22.(토) ~ 23.(일), 8. 5.(토) ~ 6.(일) 총 3회에 걸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및 충주시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전통무예진흥 전국단위 사업 중 하나로 1일차에는 무예체험(택견, 활쏘기), 무예의 밤 I (레크레이션), 무예의 밤 II (가족의 시간\_불명캠핑) 프로그램, 2일차에는 지역문화체험(사과팝콘, 사과고추장, 사과강정), 생활안전체험(CPR, 부목법) 순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무예 체험 및 지역문화체험이 만족도가 높았다.





# 팀코리아택견, 우즈베키스탄 국제전통스포츠축제 참가

우즈베키스탄 국제전통스포츠축제 참가, 택견 공연 및 강습회, 청소년무예체력인증 운영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히바시의 이찬칼라 문화단지에서 개최된 국제전통스포츠축제에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정책스포츠부의 요청으로 팀코리아택견의 공연 및 마스터클래스 운영과 청소년무예체력인증 행사가 2023.9.8.(금)부터 2023.9.9.(토)까지 양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개막식에서 선보인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회, 충주시립택견단이 하나가 된 팀코리아택견의 공연은 유일한 해외팀의 공연이었으며 택견 역사상 최초의 주요 3개 단체 합동공연임에 의미가 깊었다.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정책스포츠부장관 및 세계에스노스스포츠연맹회장 등 주요인사와 언론이 이에 주목하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익일 진행된 각 택견팀의 공연은 다수의 무술수련생과 관광객이 관람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언론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더불어 충주시립택견단의 마스터클래스에는 우즈베키스탄 청소년 및 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해 택견의 역사와 기본동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습에 대한 참가증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일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무예체력인증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인 4종목인 손쓰기, 발쓰기, 무기쓰기, 힘쓰고달리기 측정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 청소년무예체력인증의 우즈베키스탄 보급을 위한 세계무술연맹과 우즈베키스탄사티연맹의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무예체력을 실시하며 인증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사)세계무술연맹은 본 행사 참가를 통해 팀코리아택견의 합동공연이 택견계의 화합과 세계화를 이룩했으며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고 국제무예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청소년무예체력인증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한 중앙·서아시아권 국가에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양국의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22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25개국 32개 회원대표 참석 무예진흥활동 정보 공유 및  
유네스코 등재무술진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권한 강화와 점진적 조직 정비 추진 의결

제22차 세계무술연맹 연차 총회가 정화태 의장(총재) 주재로 2023. 8. 16.(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각종 위원회 설립 및 운영 관련 조항 개정 및 발전방안 토의 결과에 따라 기존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유네스코 등재 무술진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조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단계별로 조직을 정비하여 나아가기로 했다.

유네스코 체육 스포츠 분야 공식 NGO 이자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자문기구인 세계무술연맹이 작년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무예진흥 및 국제무예활성화 및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아가기 위함이다.

총회 다음날 개최 된 회원단체 주도 공개토론회에서는 향후 세계무술연맹의 수익사업 개발 방안, 축제, 대회 등 행사 회원국 순회개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제22차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기념사진  
2023. 8.16.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

## 제5차 유네스코 등재무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

8개국 유네스코 등재무예대표 참석 정기회의 개최,  
이란 국제주르카네스포츠&팔레바니연맹 위원장 재선출.

2023. 8. 17.(목) 8개국 유네스코 등재무예단체가 참석한 제5차 유네스코등재무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전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센터(ICHCAP) 사무총장이자 현 세계무술연맹 이사인 허권 박사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서울비전 2023” 설명과 분석에 대한 기초연설로 시작되었고 캄보디아 쿤보카토연맹이 신규위원으로 가입 승인되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이란의 Mr. Mohsen Mehralizadeh 위원장과 이집트 Ms. Neiven Wagdy Eshak 부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다시 만장일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속위원들과 강한 유대와 협력하여 무술계와 세계무술연맹 회원국들과 함께 무술진흥을 이끌어나 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5차 유네스코 등재무술진흥위원회 정기회의  
2023. 8. 17.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1세미나실

# 한국-베트남 무술문화교류주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3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사업 “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무술의 가치 제고와 무술인 및 문화예술인들의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회원단체와 해당 정부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무술문화교류주간”사업이 올해는 한국 충주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총2회 개최되었다.

1차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세계보비남연맹의 상임고문 Dr. Vo Danh Hai와 베트남전통무술연맹 대표 Mr. Le Kim hoa가 이끄는 베트남무술팀이 충주에 방문, 한국의 택견 청소년들과 쌍방향 강습회 및 IMAC 참가를 통해 교류 하였다.

2차 교류는 한국택견협회, 대한씨름협회, 무예작가 이진혁, 충주의 대표 댄스팀 트레블러 크루가 12월 11일부터 18일 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 일주일간 호치민시체육대학교, 호치민경제금융대학교, 호치민시립극장 등에서 교류를 진행하였다.

향후 회원단체 및 해당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 무술행사를 세계곳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교류 기간 중 2025년 베트남 독립기념 국제무술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 2023 찾아가는 청소년 무예체력인증

충주 지역 10개 학교 방문, 무예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신체 발달 및 체력상태 연령별 측정

조선시대 무과 및 전통놀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장비를 접목시켜 무예 수련 및 기술 구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손쓰기, 발쓰기, 무기쓰기, 힘쓰고 달리기 4종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회복 등 무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무예체력인증이 금년 충주시 택전 지정학교 10곳을 각 2회씩 찾아갔다.

총 1,2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측정 기록을 수치화한 결과 92.3%의 참가자들에게서 1학기 대비 향상된 2학기 체력 측정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23 찾아가는 청소년 무예체력 인증서와 참가증서가 배부되었다.

무예체력인증은 2024년에도 ICM과 함께 수혜 범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세계무술연맹 20년(2002-2022년) 발간

지난 20년을 깊이 간직하고, 새롭고 지속가능한 무술계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2002년 10월 2일 대한민국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한 26개국 28개 무예단체가 서명한“세계무술연맹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세계무술연맹은 2023년 현재 47개국 70개 무예단체들이 소속되어 각국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지속발전가능목표(SDGs) 달성과 같은 국제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로 연대하며 세계 곳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그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국의 다양한 무술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충주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유네스코 C2기관(ICM) 설립추진 및 등재무술진흥위원회 설립과 운영, 국제문화교류, 청소년캠프, 학술세미나, 무예조사, 문화동반자사업, 국제연무대회, 국내외 무예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등 세계무술연맹의 지난 20년 활동과 그 이야기를 한권의 책에 담는 일은 꽤나 뜻 깊었고 한편으로는 매우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점 너그럽이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화태 총재 발간사 중)



# 총회 유치 절차 안내

## 총회 유치 신청 과정 및 진행

### 1. 총회 유치 신청 방식

유치 의사를 표명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의향서를 받아 1개 국가를 선정

- ① 공식 제안서(Bidding Document) \* 연맹 신청서 양식
- ② 비공식 제안서(서신 형태) \* 연맹 사무국(공식)에 제출

### 2. 유치의향서(신청서) 제출

- ① 주관 단체장 명의 서신
- ② 주관 단체 개요
- ③ 행사 추진 계획 및 예산(안)
- ④ 양식(붙임 참조)

### 3. 현장 답사(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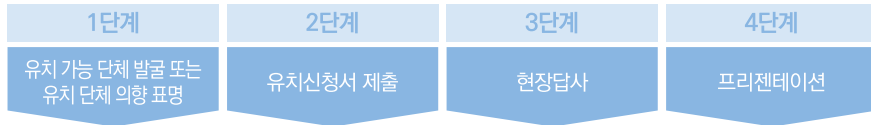
### 4. 개최지 결정

- ① 결정 방법 : 합의 또는 투표 등 상황에 맞게 결정
  - 합의의 경우 : 개최지 결정을 위한 회의 직전 공식 행사(환영 연회장, 개막, 커피브레이크 사교 행사 등에서 경쟁 단체들과 연맹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유치 가능 단체를 판단, 조건(재정부담, 교통, 관광지 등) 상 불리한 쪽이 양보
  - 합의 부결 : 개최지 결정 연기

### 5. 전담반 구성

총회 유치 단체가 개최국으로 결정되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개최 준비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한다. 특수한 경우나 사무 업무가 과중한 경우, 그밖의 이유로 조직위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회의 전문 용역업체(PCO)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 6. 총회 유치 과정 흐름도



### 7. 총회 유치 기관의 진행 절차

- ① 기관의 유치 의사 확정
  - 예산 확보 가능성 확인
  - 인력 확보 점검
- ② 지원 가능한 정부 기관과 유치 협의 결정(domestic agreement)
  - 정부 차원에서 회의 개최 사전 준비 사항 점검
- ③ 연맹 사무국에 개최 신청서 제공(bidding) \* 양식 : 연맹 사무국 제공
- ④ 회의 시설 답사팀 안내(site inspection)
  - 회의 시설 소개
- ⑤ 공식 제의(official invitation)
  - 개최 의사 확인

- 참가 대표 비자 발급 서약
- ⑥ 개최지 결정(voting)
- ⑦ 개최지 확인 공식 서한 접수(confirmation)
- ⑧ 전담반(host committee) 구성
  - 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

8. 연맹 사무국의 총회 개최 준비

〈당해 연도 개최 지원〉

- ① 회의 참가자 정보 및 행사 준비 관련 자문 제공
- ② 회의 문서 준비
- ③ 등록 데스크 운영
- ④ 회의 운영(본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세미나, 유네스코 등재 미술단체 회의)
- ⑤ 한-영 동시통역 ※ 항공료·오찬비 등은 협의에 따름

9. 총회 유치단체 단계별 추진 일정표

① 전체 Flow

유치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단계
유치 방침 결정 → 유치신청서 작성 → 유치 신청 → 유치 활동 → 유치 결정	준비위원회 결성 → PCO 선정 → 추정 예산안 작성 → 장소 선정 → 등록 정책 수립 → 세부 계획 수립 (등록, 숙박, 학술 프로 그램, 사교 행사, 인쇄 및 출판, 관광, 수송, 인 력 운용, 홍보, 예산 등)	연맹 사무국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 및 지원	정산 → 평가 → 결과 보고

※ 연맹 총회 해외 유치 근거 : 연맹 정관 제4장(총회) 제21조 ② “총회는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주세계미술축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연맹 회원국에서 유치를 희망할 경우 동회원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 는 정관 규정에 근거한다.

세계미술연맹 총회 추진 체계

■ 사업 분담

① 사무국

- 총회 운영 총괄 및 통합 관리,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유치 주체와 긴밀히 공조
- 총회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
- 총회 본회의 운영
- 참가자 초청 및 인원 확정하여 유치단체에 제공 이후 유치단체 조직위원회와 참가 단체 간 초청 추진 메일은 CC를 통해 공유하고 필요시 지원 및 본회의 프로그램 운영

② 총회 주관 기관

- 문화탐방 기획, 진행
- 숙박, 오/만찬 등 운영
  - \* 오찬은 협의를 통해 결정
- 비자 발급 등 총회 참석자 입국 지원



2023 겨울호  
WOMAU  
New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